

광주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과없다

광주를 비롯한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해당 지역 주택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몰아치고 있어 대출규제 및 세금 완화 등 지방 주택경기 부양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의 경우 남구가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된 데다 광산구도 지난 2005년 6월 이후 주택투기지역에 묶여 있는 등 5개 자치구가운데 2곳이 규제를 받고 있어 주택투기지역 해제, 대출규제 완화 등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남구를 제외한 광주지역 4개 구가 지난 2일 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해당 지역 내 주택시장은 여전히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해제 결정 발표 이후에도 기존 주택의 거래증가 현상이 여전히 대다수 건설사의 모델하우스도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한산하다.

당초 건설업계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수요자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등 전반적인 주택시장이 '숨통'을 트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해제 조치 이후로도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늘장 대책'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지방 주택시장이

남구 '과열지구'·광산구 '투기지역' 여전히 주택시장 침체...대출완화 등 부양책 절실

장기간 활력을 잃은 데다 매수세 조차 자취를 감춘 상황이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광주는 또 남구가 이번 해제 조치에서 제외된 데다 광산구가 여전히 주택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등 2개구가 규제를 받고 있어 투자심리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 2년간 투기지역이 유지되면서 기존 주택의 매매가 사실상 중단된 데다 미분양 물량도

급증세를 보이는 등 정부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최근 광산구에 아파트를 분양한 A업체의 경우 총 572세대 가운데 90여세대만 분양되면서 80% 이상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또 광산구 신가동과 산월동 일대에 5천여세대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한 B업체도 2천여세대가 입주자를 찾지 못하는 등 광산구 전역의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방

주택시장의 미분양 해소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투기지역 해제와 대출규제 및 세금 완화 등을 통한 수요자들의 자금 경색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해당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단기간 처방인 만큼 광산구 등 지방의 투기지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 실수요자들의 재고주택 분배와 신규 분양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주택 관련 규제 완화를 필요로 한다"며 "지방 주요 도시의 주택 투기지역 해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대한중장비 하남사무소 헌판식. 대구그룹 산하 대한중장비(주) 하남사무소 헌판식이 3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내 사무소에서 이영준 대주건설 대표(왼쪽부터 세번째), 김상욱 대한중장비 대표(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나주혁신도시 토지보상 내달 착수

전남도와 한국토지공사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사업시행자가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현장에 토지보상 사무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토지보상 준비에 착수했다.

3일 전남도와 토공에 따르면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220만평에 조성될 공동혁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이 지장물 조사가 끝나는 오는 8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토공과 전남도 등 사업시행자는 최근 금천면과 산포면에 각각 토지보상 사무소를 설치하고 각종 토지보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보상사무소에서는 법무·세무·금융안내 등 보상에 대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서비스' 체계를 갖췄다. 또 보상금의 금융기관 예치, 대도 자금 융자, 맞춤형 금융상품 홍보, 투자요령 등 대한 안내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 상담을 위해 금융 사별 전담 직원을 상주시키는 한편 조만간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光銀 '인덱스펀드' 판매

광주은행이 3일 금융트렌드와 고객수용을 적극 수용해 판매 수수료를 대폭 낮춘 인덱스 인터넷전용 펀드와 주식형 펀드 동시 판매에 들어갔다.

인터넷 전용펀드인 '글로벌 인덱스 온라인 펀드'는 업계 최저수준의 낮은 판매 수수료로 전 세계 주요 국가나 지역의 주가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지역 및 대상에 따라 미국·유럽·일본·중국·이머징 국가·한국에 투자하는 모두 6개 펀드로 구성돼 있으며, 각 해외지수에 소액 분산투자도 가능하다.

글로벌 인덱스 온라인 펀드는 광주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최저 가입금액은 5만원이다. 함께 시판될 '한국 웰드와이드 웰스트리트 투자은행 주식형 펀드'는 현재 주식형 펀드에 비해 판매수수료가 10%가량 저렴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신세계 '복합쇼핑타운' 체제 1년 매출액 53%·고객 50% 늘었다

광주신세계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복합 쇼핑타운 체제를 갖춘지 1년만에 매출 및 고객수 급증 등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신세계는 4일 이마트 개점 1주년을 맞아 3일 배포한 자체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7월 4일 이마트를 오픈하고 백화점을 리모델링 하면서 전국 최초로 '백화점+대형마트'라는 복합 쇼핑타운 체제를 갖춘후 매출액과 고객수가 50%이상씩 늘었다"고 밝혔다. 2006년 회계기준 순매출액은 1천453억원으로 전년 대비 52.7%, 당기 순이익은 212억원

으로 12% 신장됐다. 또 전체 고객수도 50% 늘어 백화점과 이마트간 연결통로 이용고객만 평일 7천500명, 주말은 1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 남구·동구·북구 등 광주시내 경쟁상권 고객이 10% 이상 늘었고, 전남과 정읍·고창·순창 등 전북 일부지역의 고객도 5% 증가하는 등 상권의 광역화 현상이 뚜렷했다고 평가했다. 고객이 늘면서 매출기여도에서 상위 20%를 차지하는 VIP 고객의 전체 매출액 구성비율도 2% 상승해 73%를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안명수 광주축협조합장 농협중앙회 감사위원 당선

안명수 광주축협 조합장 산협동조합장이 지난 2일 실시된 농협중앙회 감사위원 선거에서 임기 2년의 감사위원에 재선됐다.

합평출신인 안 조합장은 지난해 광주축협을 경영최우수조합상, 전국 고객만족대상 수상조합으로 이근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주택투기지역은? 대출 규제에 탄력세율까지 적용받아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해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대상은 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의 월평균 상승

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다. 현재 광주 광산구 등 93곳이 지정돼 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

야하며, 기본 세율이 최고 15%의 탄력세율이 더 붙는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아파트 담보 대출 때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를 40%, 5천만 초과~1억원 이하면 60% 이내가 적용된다.



치를 기록하는 7, 8월 휴가시즌이 포함될 하반기에는 여행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적자에상영까지 감안하면 하반기 이후 여행수지 누적적자액은 올해말 500억달러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이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해외유학·연수비 지출도 매년 30%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행수지 적자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필수

수입쌀·쇠고기 '국산둔감' 늘어

국민의 주식인 쌀과 쇠고기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상술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다 유전자(DNA) 분석법 등을 동원한 감독 당국의 감시도 강화되면서 원산지 허위 표시 적발은 작년보다 오히려 크게 늘었다.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말까지 6개월동안 적발된 쇠고기와 쌀 관련 원산지 위반 사례는 각각 193건, 14건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의 191건, 6건과 비교해 쇠고기는 비슷한 수준이나 쌀은 이미 두 배를 넘어섰다.

아예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미표시'를 제외하고 원산지를 일부러 속여 판 '허위표시'만 따지면, 쇠고기도 109건으로 작년동기의 88건보다 24%나 증가했다. 연필수

여행수지 누적적자 455억弗 환란이후 해외여행객 급증세

연내 500억弗 넘어설 듯

해외여행객이 붓물 터진 듯 급증세를 보이는 데다 외환위기 이후 여행수지 적자 누적액이 4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올해중으로 5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해외여행 경비와 유학·연수비 등으로 구성되는 여행수지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34억4천만달러, 99년 19억6천만달러의 흑자를 냈으나 2000년에는 3억달러의 적자로 반전됐다.

이후 여행수지 적자액은 매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2001년 12억3천만달러, 2002년 45억3천만달러, 2003년 47억4천만달러, 2004년 62억8천만달러, 2005년 96억달러에 이어

지난해는 129억2천만달러의 적자로 연간 적자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었다.

특히 올해 1~5월에는 적자액이 59억3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급증했으며 이러한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여행수지 적자액은 160억달러를 웃돌게 된다.

2000년 이후 작년말까지 여행수지 누적적자액은 396억달러에 달하며 올해 5월말까지의 적자액을 합하면 455억달러에 이른다.

외환위기 직후 2년간의 반짝 흑자액을 차감하더라도 올해 5월말까지 여행수지 누적적자액은 400억달러를 상회한다. 특히 해외여행 출국자가 연중 최고

베트남 국제결혼. 지금 당신의 신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오자이 국제결혼이帮您입니다. 062)232-8966, 010-5256-8966

이태리가구 전문점. 1년만 한번 7월 19일까지 % Off SALE. 062)232-7567